

# JY ‘운명의 4월’ 되나... 법조계 “이달 상고심 선고 가능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법원 지난달 28일 세번째 합의  
박 구속기간 만료인 16일에 촉각  
16일 이전 상고 선고시 11일 유력  
비중있는 사건... 장기화 목소리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이 빠르면 이달 중에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지난 3월 28일 세 번째 합의를 여는 등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월 10일 이 부회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데 이어 지난 3월 21일과 28일 잇따라 전체 대법관들이 참가하는 합의를 열었다. 일주일 간격으로 두 차례 합의가 연이어 열린 만큼 결론이 어느 정도 내려지지 않았겠느냐는 전망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원 최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는 “합

의가 몇 번 열렸다는 것만으로는 선고가 임박했다는 징후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합의가 많이 열렸다면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의미인 만큼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했다.

중견 법관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세 차례 합의를 연 뒤에 오히려 장기미제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세 차례쯤 열렸다면 최종결론이 임박했다

고 높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최종결론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는 16일 이전에 상고심 선고가 내려질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시점이 오는 16일이라는 점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이미 총선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16일이 지나더라도 석방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 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공식입장이지만 논란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결론을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견해다.

만약 그대로 된다면 가능성이 있는 날은 오는 11일이 유력하다. 통상 대법원이 매주 목요일에 상고심 선고를 했는데, 16일전 목요일은 4일과 11일 이틀 뿐이기 때문이다. 특별선고기일을 잡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만약 11일 선고가 내려진다면 늦어도 이번 주말 즈음에는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 날짜가 공개된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들은 “16일에 최종결론이 내려지기에는 시간상 제약이 있어 보인다”면서 이르면 이달 하순이나 다음 달 초순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더 많다는 분위기다.

사건의 성질상이 부회장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결론도 함께 나와야 하는데, 하급심에서 보듯 판결문을 작성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11일을 선고기일 오잡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것이다. 핵심쟁점인 뇌물죄의 인정범위를 두고 대법관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릴 수 밖에 없는 만큼 세 차례의 합의로 결론이 내려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여전히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하급심에서도 1심 재판부와 2심(항소심) 재판부의 견해가 달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중견 법조인인 변호사 B씨(사법연수원 25기)는 “구속기간 만료시점 때문에 ‘4월 선고설’이 나온 것”이라면서 “사건의 비중이나 쟁점의 내용으로 볼 때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며 장기화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정용진 기자 ohngbear@metrosoul.co.kr

## 안전 굴레에 갇힌 軍



문형철

국방기자 칼럼

군대란 조직은 위험을 감수하고 싸워야 하는 조직이다. 때문에 전투원이 전쟁에서 최대한 생존할 수 있도록 훈련은 실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국군은 과도한 안전과 보신주의로 실전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실전성이 퇴색해 가는 것 같다. 과격하게 말하자면 전담회의 전 시뮬로 국군이 진화하는 것 아닐까.

국군의 기관지인 국방일보에 지난달 28일 공군의 새로운 ‘사격 안전 장비 3종’을 극찬하는 기사를 올렸다.

국방일보에 따르면 공군의 사격 안전장비는 K2 소총의 힌지(총몸을 열고 닫게하는 부품), 전용 탄피회수통, 지붕형 총기안전틀로 구성돼 있다. 공군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훈련단)이 자체개발한 이장비가 사격의 안전도와 훈련 성과를 제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전투에 사용하지 않는 장비를 부착한 사격과 실제 전투 사격이 같은 훈련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야전 상황과 최대한 유사한 조건이라도 유사시 전투원의 생존성이 높아질까 말까할텐데 말이다.

총기와 직접 연결된 장비에 대해 훈련단은 힌지안전핀이 힌지의 풀림과 용수철 후퇴를 차단해 사고를 방지한다고 설명했다. 박스형 탄피회수통은 가늠자 높이까지 올라와 사수의 시야에 간섭을 줄 수 있는 형상임에도 훈련단은 무게와 제작 단가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총기를 삽입해 총열 전체를 감싸는 지

붕형 안전틀은 사수의 시야를 크게 제약할 수 있다.

교관 및 조교가 사고발생을 완전히 제거하고 훈련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라는게 공군의 설명이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만드는 꼴 아닐까.

안전성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격술 향상과는 분명 거리가 먼 장비비에 틀림 없다.

이와 관련해 훈련단 측은 “타군에서 발생한 예비군 훈련 사격장 사고에 대한 고민을 각군이 하고 있다”면서 “장병의 생명을 최우선시 하는 가운데 신병의 사격술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위해 고민 된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군의 사격 안전장비는 훈련단을 비롯한 공군 전 부대에서 사용 중이기 때문에, 최소한 진지전투에 맞는 전투사격술 숙달에는 맞지 않다.

공군의 사격 안전장비를 접한 국내의 전술 및 사격 전문가들은 공군 뿐만이 아니라 징병제인 한국군이 봉착한 문제일 것이라고 말한다.

익명의 전술 전문가는 “징병제가 아니지만 자위대도 사고에 민감해 안전에 대한 강구가 지나친 편”이라면서도 “훈련의 실전성을 잃지 않기 위해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사격 등 다양한 훈련방법을 강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민주화 발전 속도와 비례해 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 서개인의 의사가 아닌 징병으로 입대한 장병들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커진 것”이라며 “일선의 지휘관들이 고민을 하게되는 것이지만, 실전성을 버렸다는 것을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

## “고교-대학, 대입 시각차 줄이고 신뢰 제고”

‘교사-입학사정관 원탁토의’ 개최  
17개 시도교육청과 6개 권역서 진행

고교 교사와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마주 앉아 고교 수업과 평가, 기록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다. 올해 고1부터 바뀐 학생부 기재 사항의 현장 안착을 위한 취지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6개 권역에서 ‘우리 모두의 아이로 공감하는 고교-대학간 원탁토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원탁토의는 교육부가 지난해 국민참여 숙려제를 통해 마련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의 현장 안착과 학교교육과 평가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다.

권역별 진행되는 원탁토의는 해당 지역 고교 교사 5명과 입학사정관 2명, 진행을 돕는 사회자(퍼실리테이터) 1명씩 참여해 그룹별로, 전국 교사 75명과 수도권과 지역 대학 입학사정관 35명이 참여한다.

원탁토의는 4일 경기지역을 시작으로 18일(서울·인천·강원), 30일(충북·충



교육부

남·대전·세종), 5월10일(경북·울산·대구), 5월22일(경남·부산·제주), 5월30일(전북·전남·광주) 총 6차례 진행된다.

원탁토의의 주제는 ‘학생의 성장에 대한 신념’, ‘수업과 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실천’, ‘평가 결과의 기록과 활용’ 등으로 현장 교사와 입학사정관들의 경험과 생각이 공유된다.

2시간의 원탁토의 이후에는 학계 인사 등 교육분야 전문가 패널이 참여하는 좌담회가 1시간 동안 이어진다. 좌담회에서 패널들은 원탁토의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질문에 직접 답변

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원탁토의는 고교와 대학이 함께 학생 성장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하는 의미있는 자리이며, 향후 학교교육과 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상호 협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아울러 올해 하반기 시도교육청과 함께 권역별 13차례의 ‘찾아가는 학부모 설명회’를 열고 대입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 학생평가와 학생부 관련 정책 변화 내용 등을 공유해 학부모 불안감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 서경대 ‘2회 미용경진대회’ 개최

서경대학교는 오는 27일 교내 수인관에서 ‘2019년 제2회 미용경진대회’를 개최하고, 17일까지 진학여플라이 홈페이지서 참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서경대가 주최하고 서경대 예술교육센터, 미용예술대학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고등부(고등학교 재학생)와 일반부(만30세 미만 대학생, 일반인)로 나눠 진행된다. 참가 부문은 헤어와 메이크업이다. 헤어는 커트, 펌, 업스타일 종목이고, 메이크업은 웨딩메이크업, 패션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종목이다. 각 종목은 세부 종목으로 나뉘어 경연이 펼쳐진다. /한용수 기자

## 광운대 “IT 분야 여성인재 양성”

IT여성기업인협과 상호협력 MOU

광운대학교는 2일 오후 교내 화도관 대회의실에서 (사)IT여성기업인협회와 상호협력력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IT 분야의 맞춤형 인재 및 우수 인재 육성 ▲IT 분야 여학생의 진로, 취업 및 창업 도움 지원 ▲IT 분야 여성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과 발전을 위한 지식정보 및 전문 인력 교류 ▲취약계층 및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창업 활동 지원 ▲국제화 사업 공동 연구 및 진행 등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광운대 유지상 총장(오른쪽)과 IT여성기업인협회 전현경 회장이 지난 2일 상호협력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광운대학교

유지상 광운대 총장은 “협약을 통해 이공계 여학생들이 다양한 산업분야를 선도하는 주제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